

학생부 성적의 객관성 제고와 활용

한 광 수 | 여의도고 교장

I. 들어가는 말

요즈음 초·중등 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가 많아졌다. 극단적으로는 교육이 황폐화되었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교수 - 학습면에서만 놓고 보면 오늘날이 1970년대 이전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1970년대 이전의 대학 입시는 대학 본고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각 고등학교는 대학 본고사 위주로 교수 - 학습이 이루어졌기에 당연히 교육과정은 경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내신 성적이 도입된 이후로 고등학교의 교수 - 학습은 대학 입시보다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이렇듯 내신 성적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II.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의 변화

1. 과거의 내신 성적 반영

내신 성적 반영 초기 단계에서는 그 반영 방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 평가하여 내신 등급을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첫째, 각 고등학교의 정기 고사는 그 자체가 대학 입시에 직결되었다.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12번의 정기 고사의 결과이기에 학생들은 매 시험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도 시험 관리를 그 이전에 비해서 엄격히 관리하였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시험 문제 유출 사건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둘째, 성적과 관련된 잡음이 많아졌다.

모든 과목이 내신 성적에 반영된 결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필 고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체능 교과에서 이러한 잡음이 많아 교육 당국에서는 이러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많은 지침을 내려보내곤 하였다.

셋째, 대학 서열화를 유발하였다.

대학 입시의 성적은 학력 고사 성적과 내신이 거의 전부이였기에 전국의 수험생이 사실상 일렬로 줄을 설 수밖에 없었고, 대학 진학도 이에 의거했기에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몇 점이면 갈 수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학 서

열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넷째, 자퇴생이 급증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학생들은 검정 고시라는 편법을 이용하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에 자퇴하는 경우가 늘었다.

2. 현재의 내신 성적 반영

위와 같은 부작용을 시정하고자 1990년대에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대학 자율로 맡겨 현재는 위와 같은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1학년도 각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은 문자 그대로 천차만별이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1) 학생부 요소별 반영 내용

2001학년도 대학 전형에서 반영되고 있는 학생부 사항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이다.

- 교과 성적 • 출결 상황 • 봉사 활동

학교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세 가지를 다 반영하는 학교
- ② 교과 성적과 출결 상황만 반영하는 학교
- ③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학교

2) 교과 성적의 학년별 반영 비율

이 비율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 ① 학년별로 동일하게 하는 학교
- ② 학년별로 차이를 두는 학교 - 이 경우는 대체로 1학년 2/10, 2학년 3/10, 3학년 5/10의 비율이다.

3) 반영 교과목

이 사항은 대체로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 ①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 이 유형은 극소수이다.
- ② 계열에 따라 달리 반영하는 학교 - 이는 또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 i) 학과군을 정하고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표 1〉 참조)
 - ii) 학과군을 정하고 일부 교과목을 반영하는 학교
- ③ 학과군에 관계없이 최상위 교과 성적의 일부를 반영하는 학교

4) 점수 산출 방법

이 방법은 형식상 모두 4가지이다.

- ① 석차 백분율 × 단위수 × 교과목수
- ② 석차 백분율 × 교과목수
- ③ 평어 × 단위수 × 교과목수
- ④ 평어 × 교과목수

현재 내신 성적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목의 예

구 분	반영 교과군
인문계/예·체능계	국민윤리, 국어군, 사회군, 외국어 교과군에 있는 전 과목의 성취도 및 단위수
자연계	국민윤리, 수학교, 사회군, 외국어 교과군에 있는 전 과목의 성취도 및 단위수

첫째, 고등학교의 정기 고사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예전의 방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시험이 대학 입시에 직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압박을 많이 받았으나 극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일부 교과만 반영되므로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미미하기는 했지만 예·체능 교과에서의 잡음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내신 성적 방법이 위에서 지적한 대로 천차만별이기에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또한 각 대학에서도 보다 유능한 학생이, 그리고 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신 적용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고등학교 정기 고사시 이른바 성적 거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 판정은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교과 성적 반영시 석차 백분율이 아닌 평어를 반영하고 있기에 고등학교 입장에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문제를 평이하게 출제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이에 대한 보완책은 뒤에서 논의하겠다.

3. 2002학년도 대학 전형의 변화

2002학년도 대학 전형부터는 2001학년도 전형에 비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점제에서 다단계 전형으로 바뀐다.

2001학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합산한 총점제였다. 그러나 2002학년도부터는 각 반영 요소를 여러 단계로 분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둘째,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총점과 소수점 이하는 제공되지 않고 각 영역별 점수와 총점 대신 등급이 표시된다.

이 두 가지 주요한 변화에 따라 각 대학의 전형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제 1단계는 수능 등급을 적용할 것이다. 상위권 대학은 4% 이내인 1등급이나 11% 이내인 2등급까지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것이며, 다른 대학도 적절한 등급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은 2단계 이하에서 적용될 것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과 성적이고 이에 대한 객관적 반영이 현재 우리의 관심사이다.

Ⅲ. 객관적인 교과 성적 적용 방안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 성적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고등학교의 성적이 부풀려 있다는 점이다. 한 과목에서 '수'를 받는 학생이 30%가 넘는 과목이 허다하게 많은데, 어떻게 학생들의 우열을 구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는 대부분이 이른바 명문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에서 평어를 적용하지 않고 교과 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외형상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비평준 지역의 학교에서 수확한 학생들

이 명문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난제가 있다.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수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특수 목적이나 비평준 지역의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문 대학의 고민도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고 해서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 평가를 절대 평가에서 상대 평가로 전환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상대 평가는 고등학교의 정기 고사에서는 비교육적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을 지도한 다음 평가하게 되는데, 교사가 설정한 학습 목표에 도달한 학생들이 모두 '수'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상대 평가보다는 절대 평가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더욱 고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성적을 신뢰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대학에서 교과 성적 방안을 다양하게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각 대학에서 적용하는 방안이 대학마다 다르지만, 한 대학만 놓고 보면 적용 대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표

2) 참조)

아래의 <표 2>에서 보듯이 적용 대상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고 있고,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2학년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 중 동일계 지원자가 아닌 경우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간 우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학교간 우열은 주로 평준화된 일반 고교와 비평준화 그리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간에 나타난다.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둘 때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월성 교육을 무시한 일부 국가의 발전이 정체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된 일반 고교와 비평준화 그리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을 구분하여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평준화된 일반 고교 출신 학생에게는 석차

<표 2> 교과 성적 적용 방법의 예

전형 대상	반영 방법
1998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적용(학생부 있는 자의 반영)
1997년 3월 이전 고교 졸업자	수능 계열 백분위(변환 점수) 적용
검정고시 출신자	
교과 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외국어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중 동일계 지원자	학생부 있는 자와 동일하나 지정 과목이 있는 학년·학기의 성적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위탁생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백분율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성적 부풀리기를 하여도 우수한 학생과 그리하지 않은 학생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한 학년 300명 정도의 학생 가운데 100명이 만점일 경우는 어떻게 우열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생활 기록부의 교과 석차에는 동석차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300명의 학생 가운데 100명이 만점일 때, 현재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듯이 이들을 모두 50등에 해당하도록 한다면 각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 각 대학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 출신자에게는 평어를 반영한다.

대학에서 이러한 학교로 인정할 수 있는 학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비평준화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대안에서 일부 사람들은 평어를 반영하는 학교의 출신자들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단계 전형의 특성을 도외시한 의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각 대학에서 1단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적용할 것이고 2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적용할 것인데, 이 때에도 일정한 기준 이내로 적용한다면 평준화된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절대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각 대학에서는 교과 석차 백분율은 몇 % 이내, 평어인 경우는 석차 몇 등 이내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점수, 그리고 논술 및 면접을 전형 요소로

적용한다면 교과 성적의 객관성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대학 입시 전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다. 그래서 전 해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했어도 그 다음 해에 3학년 담임을 하지 않는다면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교육이 발전해 온 것이다.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인데,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보다 좋은 방안을 각 대학에서 모색한다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01학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체험 활동도 누가 기록된다는 점이다. 체험 활동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대학 입시에 직결되지 않는 교육 활동은 고등학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대학에서 체험 활동을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 **한평수**

한평수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서울 교육청과 동작 교육청 장학사, 서울공고 교감, 교육부 편수관실 교육연구관을 역임하고 현재 여의도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다.